“이국땅에서 40년 넘게 어떻게 그 일들을 했냐고요? …신은 한사람 한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할 일을 주신다고 믿어요, 제게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뿐입니다.”

경기도 ‘일산홀트복지타운・요양원’ 에서 270여명의 장애인들과 생활하고 있는 말리 홀트(68・홀트 아동복지회 이사장). 그는 ‘홀트’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듯 홀트아동복지회를 처음으로 이 땅에 세우고 한국 입양아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고(故) 해리 홀트 씨의 둘째 딸이다.